

“친구야! 밥 먹고 학교 가자”

구례 광의초, 올바른 식습관 캠페인 진행



구례군 광의초등학교(교장 장병길)는 10월 7일 학생들의 등교 시간을 이용하여 학교 주변 및 교문 앞에서 교직원, 학부모와 교내 자율봉사 동아리 미(미) 사랑 도우미(미)(이하 미(미)미(미))가 함께 참여한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광의초는 재학생들의 올바른 신체발육과 건강을 위한 올바른 식습관 습득을 돕기 위해 2015년부터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이번 캠페인은 아침밥 먹기 생활화로 건강한 식생활 유지하고 쌀 중심 식생활의 우수성 배양 및 전통식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려는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등굣길 학생들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광의초는 이번 행사를 위해 10월2주를 아

침밥 먹기 캠페인 주간으로 정하고 아침밥 먹기 생활화를 위한 짧은 글쓰기 대회를 실시하여 밥으로 먹는 아침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7일 캠페인을 위해 일찍 학교를 찾은 교직원, 학부모, 미(미)미(미)들은 등굣길 학생들에게 로컬푸드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우리 지역의 농산물 소비촉진의 일환으로 구례 지역의 단감과 함께 우리 쌀가공품인 빵과 떡의 단감을 이용하여 학생 대면교육, 아침밥 먹기 쓰기 지도 등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장병길 교장은 “쌀 중심 식습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광의초 학생들은 우리 쌀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우리 쌀 사랑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계기로 가정과 연계한 아침밥 먹기 중요성에 대한 관심과 실천 유도 및 특히 쌀 중심의 아침식사 중요성과 균형 잡힌 영양섭취의 필요성을 알고 올바른 식문화 실천 의지가 고취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고 밝혔다.

(미)(이하 미(미)미(미)) 김보 학생은 “미(미)미(미)가 되면서 아침밥을 거르지 않고 먹게 되었다. 아침밥을 먹기 전에는 1교시부터 배가 고파서 공부에 집중이 안했는데 아침밥을 먹으면서부터는 공부시간에 집중이 더 잘된다는 것을 느꼈다. 오늘 평소보다 일찍 나오느라 긴장했지만 아침밥은 꼭 챙겨 먹었다. 미(미)미(미)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것 같다.”라고 웃으며 소감을 전했다.

김보 학생은 “영양선생님은 나만 보면 항상 아침밥을 먹었는지 무었을 먹었는지 물어보신다. 만나지만 하면 물어보시니까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먹게 되었다. 항상 밥을 먹지는 못하지만 밥을 먹고 난 날에는 내가 친구 영양선생님을 찾게 된다. 아침밥을 먹으려고 노력하는 보나 늦잠도 줄고 일찍 자게 되어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 앞으로는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약속했다.

광의초는 2016. 쌀 중심 식습관 교육 운영 학교로 아침밥 먹기와 관련하여 학교 교육과 정서발달, 급식공개의 날, 한미음 체육대회 등을 통한 직접교육, 가정통신문과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한 유인물 교육, 영양교육 및 급식 시간을 이용한 학생 대면교육, 아침밥 먹기 쓰기 지도 등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장병길 교장은 “쌀 중심 식습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광의초 학생들은 우리 쌀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우리 쌀 사랑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계기로 가정과 연계한 아침밥 먹기 중요성에 대한 관심과 실천 유도 및 특히 쌀 중심의 아침식사 중요성과 균형 잡힌 영양섭취의 필요성을 알고 올바른 식문화 실천 의지가 고취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고 밝혔다.

김상문 기자 ksw@



문화상품 속 역사물결 찾아 떠난 엄마들~

구례교육지원청, 학부모자원봉사자 문화기행 실시

구례교육지원청(교육장 장진숙)은 10월 6일 구례지역 학교도서관 학부모자원봉사자 20여명이 참여하는 문화기행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문화기행은 구례공공도서관과 연계하여 지역사록 독서위원들과 함께 전주 최병희문학관과 김재 아리랑문학관을 방문하여 작가의 삶과 문학작품의 배경을 체험함으로써 문학세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했다.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최병희 문학관에서 송고환 작가의 문학정신과 열정을 함께 하고 김재 아리랑 문학관으로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역사를 바로 알리려는 소명의식과 작가 조경래의 글과 삶을 돌아보았으며, 소설 '아리랑'의 배경이 된

아리랑 문학마을에서는 수년의 역사와 당시 민초들의 삶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학교도서관에 학생들에게 책을 읽을 수 있게 안내만 했었는데, 그동안 읽지 않고 미뤄왔던 소중한 책들을 빨리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우리 학부모들에게 이런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만족스러워했다.

구례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도서관에서 학생들을 위해 봉사하는 학부모자원봉사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상문 기자 ksw@

경청하며 생각을 나누다

나주교육지원청, 독서·토론회 개최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오인성)은 10월 6일 초등학생 36명을 대상으로 나주영재교육원에서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며 생각을 나누는 독서·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회는 사전에 안내된 선정도서에서 출제된 토론 주제에 대해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발표하는 이야기식 토론과 찬반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했다.

이대영 기자 lid@

한국을 온몸으로 느낀다

전남도교육청, 원어민 장학사 문화체험 학습 실시

전남도교육청(교육장 장만재)은 6-8일 보성, 여수 등지에서 2016년 하반기 TaLK 원어민 장학사 60명을 대상으로 문화체험 학습을 실시했다.

TaLK(Teach and Learn in Korea) 원어민 영어 봉사 장학사(이하 TaLK 원어민 장학사)는 2008년부터 현재 17기가 운영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농·산·어촌 초등학생들에게 영어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간 영어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재외동포 학생들에게는 모국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영연권 대학생들을 초청해 한국의 대학생활과 짝을 이뤄 가르치고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TaLK 원어민 장학사는 도내 60개 초등학교에 배치되어 초등교육 방과후 및 정규 영어수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 한국을 배우고, 지역의 문화, 역사, 일상생활을 가까이서 체험할 수도 있도록 문화체험비를 지원한다.

이번 문화체험은 보성에서 제암산 어드벤처, 한국 차박물관 다도, 승마체험을 비롯 우수 해상케이블카, 레일바이크 코스를 거쳐 부산 감천마을, 국제시장 체험으로 이어졌다.

문화체험에 참가한 호주 출신 마커스는



“한국에 관심이 많아서 TaLK 원어민 장학사 생활에 응시하게 됐다”며 “학교에서 수업도 하고, 문화체험을 할 수 있어 한국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영력 교육진흥과장은 “TaLK 원어민 장학사들이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한국을 알리는 민간 사절단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영어교육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조인환 기자 jim@

여수 상암초 ‘찾아가는 어린이 영양체험교실’

여수시 상암초등학교(교장 오만기)는 10월 6일 학생들이 자신의 영양 및 건강 수준과 지식을 체험을 통해 직접 알아보고 느껴볼 수 있도록, 건강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영양을 배양하고 동기를 부여하고자 학교 체육관(상암관)에서 ‘찾아가는 어린이 영양 체험교실’을 열었다.

상암초등학교 ‘찾아가는 어린이 영양 체험교실’은 전남영양교육학회 주관, 전라남도 건강중심사업단과 전남지역암센터에서 후원 및 여수 초·중등 영양교사들과 본교 교직원들이 체험코너를 운영했으며 상암초등학교, 상암초등학교 교도부교장, 상암초등학교 교장실유치원 학생들이 즐거운 건강·영양 체험활동을 했다.

건강·영양체험활동은 로컬 푸드 체험, 올바른 식사 선택, 비만 관리, 찜기라질 체험, 아침밥 먹기, 나트륨 섭취 줄이기, 소아암 예방 등 11개의 부스에서 이루어졌다. 이번 체험활동은 학생들이 평소 자신의 영양, 식생활 지식과 습관에 대해 바로그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 행사는 그동안 상암초등학교 학교급식 및 식생활교육 연구회와 운영 활동과 관련하여 개최하였으며, 사립으로 가르치고 있다가 배운 행복교육을 추구하는 학교 교육비전과도 맥을 함께 하는 뜻깊은 교육행사였다.

이번 활동을 통해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학생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 정착과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고, 나아가서는 건전한 심신 발달과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하리라 본다.

최연경 기자 cje@

나주 영강초, 가족소통 힐링캠프

나주시 영강초등학교(교장 이현식)는 지난 10월 7일 오후 5시부터 1박2일 동안 가족간, 친구간, 선생님들과의 소중함을 교감할 수 있는 별빛 가족캠프를 실시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가족캠프는 마음을 열고 가족이 평소 못 봤던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고 교육 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져 영강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했다.

캠프 희망 가족 15가구의 교직원들을 포함하여 총 80여명의 교육 가족이 손수 저녁을 지어 함께 식사하고 모두가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후 가족별로 지정된 구역에 텐트를 설치하고 영화를 감상하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냈다. 이튿날, 신나는 기상송으로 아침을 시작하며 학부모들은 주변을 정리하고 학생들은 학교 곳곳에 숨겨진 보물을 찾으며 가족캠프를 마무리했다.

5학년 박진솔양은 “학교에서 가족, 친구, 선생님들과 1박2일 동안 함께하니 밥도 더 맛있고 즐거웠다. 또 가족의 재능을 느끼며 잘 수 있어서 포근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기영 교장은 “일 때문에 육군, 스마트폰을 바라보느라 마음없이 이야기하는 시간이 부족할 요즘 시대다. 함께 밥을 지어먹고 가족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대영 기자 lid@

(유) 하나로합정

방역 (학번소속) / 전문 관리 / 자유로 협소
 학생관리용 (문경/일주협소)
 TEL : (06) 324-5222 / H.P : 010-8888-3678

전남 합정군 합정읍 영수길 198-1번지
 FAX : (06) 323-0036
 E-mail : hsb3222@hanmail.net

영업종목

- 간이상수도청소
마을 단위 소규모 급수 시설, 학교, 군부대, 도시 지역, 편산 등
- 공간소독
해피트 지하 주차장, 상가 주차장, 공장내부 작업 환경 등
- 무인자동살균
유치원, 초·중·고·대학교 구내식당 등 집단 식음 예방

방역, 살균, 살충은 하나로! 방역!!!으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기업